

## 선진국 수입규제 품목 수출비중 약화

한국무역협회 집계

반덤핑관세 부과, 수량 규제 등 선진국으로부터 각종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들의 수출 비중이 갈수록 떨어져 수입규제가 우리 수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국별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수입규제 품목의 수출은 20억 5천 3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

7%에서 6.5%로 또다시 크게 떨어졌다.

수입규제 품목의 수출비중은 지난 90년 12.9%이던 것이 91년 11.3%, 지난해에는 8.7%로 계속 줄어들었다.

또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는 선진 20개국에 대한 수출액 중 피규제 품목의 수출 비중도 지난 91년의 15.1%에서 지난해 12.8%, 올해 1~5월 중에는 10.4%로 계속해 떨어지고 있다.

국별 피규제 품목의 수출 비중은 미국의 경우 91년의 19.4%에서 지난해에는 16.0%로 크게 떨어진데 이어 올 1~5월중 또다시 15.3%로 하락했다.

유럽공동체(EC)도 피규제 품목의 수출비중이 28.0%에서 지난해 25.4%, 올 1~5월중에는 15.0%로 급락했으며 일본도 91년의 9.4%에서 지난해 7.4%, 올들어 5월까지 5.9%로 떨어졌다.

## 반덤핑제소 남용방지조항 거부

美, 다국간 철강협상에서

미국이 다국간 철강협상(MSA)에 반덤핑제소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자는 협상당사국들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이 조항이 명문화하지 않고 협상이 종결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가 미국의 덤핑제소 공세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8일 이틀동안 한국 일본 브라질 유럽공동체(EC) 등 2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다자간 철강협상에서 반덤핑제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자는 주요 對美 철강수출국들의 제의를 거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브라질, EC국가 등 對美 철강수출 국가들은 자국제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관정을 내려놓고 MSA의 조속타결만을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미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때 정치적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현상모집

- 기간 : 93. 9. 1~30
- 문의 : 555-6845